



'나' 라는 주체의식을 멀하여 주체 영을 바꾸는 피같이 중생(重生)과정 체험

'나' 를 구성했던 죄의 피가대 · 소변으로 빠져 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피가 조성된다

'나' 라고 하는 주체의식을 조성하는 것은 몸속의 타락한 피다

대·소변으로 시커먼 사혈을 배출하는 체험은 중생을 증거하는 데 중요한 체험이다. 소변으로 플라 색 피를 배출하는 체험에 대하여 간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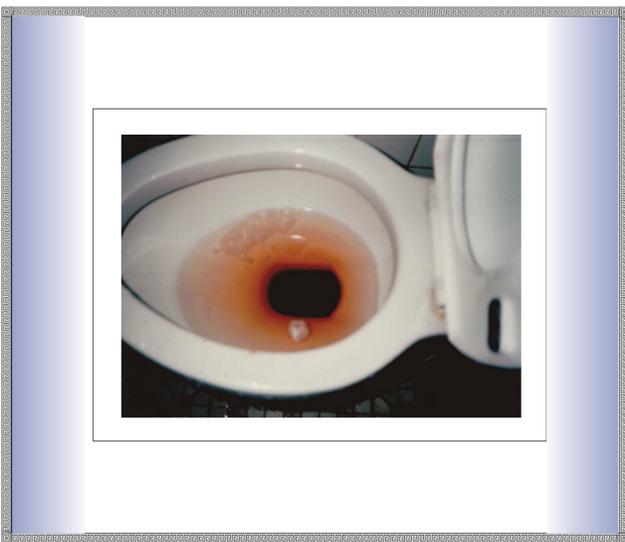
“피를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구세주밖에 없어요” “의사가 피 수술하는 거 보셨어요? 아무리 용한 의사가 할지라도 피를 수술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손 하나 대지 않고 피를 바꾸어 주는 구세주의 이슬성신 은혜의 능력!! 피를 바꾸는 것을 '피 수술'이라 표현하면서 구세주께서는 이슬성신 은혜로써 피를 맑게 변화시키는 원리와 능력과 과정을 설명하신다. 피를 깨끗하게 세탁한다는 표현도 나온다. 의학 용어로 혈액정화라는 술어를 쓸 수도 있겠다. 피가 바뀌면 죄가 해결이 되어 거듭 나 젊어지고(회춘) 항상 청춘으로 수명이 무한정 늘어난다고 하시면서 구세주는 이 변화와 수명의 상관관계를 설교하셨다.

죄의 값으로 생명이 죽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죄와 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죄를 해결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어 행복해지고, 늙지 않고 질병이 걸리지 않고 수명이 무한정으로 늘어 죽지도 않는다. 싸움과 불행과 죽음으로 살아 온 인류는 원죄와 유전죄, 자범죄로 인하여 전진이 끊이지 않았고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여도 아직도 늙음과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원죄는 인간의 핏속에 존재하는 죽음의 신 마귀이며,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다. 죄의 피를 쏟아내는 중생의 과정에 대하여 메시아께서 여러 번 스스로의 수혈 체험을 바탕으로 간증하시며 말씀을 하신 바 있다. 일차적으로 썩은 죄의 피를 획기적으로 쏟는 과정을 거쳐야 중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죄의 피를 쏟는 은혜 체험에 대하여는 그

체험자가 구세주께만 보고하여야 하지, 동료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면 은혜를 쏟는 시험을 받는다는 게 일반적인 신앙 상식이다. 인도자나 주인공의 허락 하에 성도나 일반에게 공개를 하여야 한다. '피갈음' 은혜는 신앙적으로 매우 귀중하고 은밀한 은혜의 결과인 것이며 초신자에게 그것은 메시아의 특별한 배려에 의한 것이다. 초보를 넘어서는 성장 과정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세주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피를 정제하는 반대생활의 비결을 설명하셨다. 스스로 해야 하는 단계가 있는 것이다. 아니다, 이제는 초신자도 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피갈음 수행을 행해야 한다. 은혜로써 배려를 하여줬을 경우, 인간들은 심중팔구 다 은혜를 쏟아서 대장마귀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소변으로 배출하는 체험은 대개 열은 플라 빛 소변으로서 우리들 <승리제단> 수행인들은 수시로 생활화 되고 있다. 획기적인 것은 그 진한 정도가 어느 정도이나이다. 빨간색 소변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한 중생 과정의 한 증거라고 본다. 구세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영모님께서는 시커먼 소변은 없었으며 빨간색의 소변을 쏟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시다. 그러면서 구세주께서 이간자로 완성되는 과정에 대소변으로 시커먼 피를 쏟아낸 중생 과정에 대하여 간증을 하신 바 있다.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플라 색 소변을 계속 배출해야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플라 빛 ‘썩은 피’를 여러 번에 걸쳐 쏟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바 있는 것이다.

나는 <승리제단> 수행 과정에서 빨간 소변을 겪은 때가 있었고, 또 2단계의 혹독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시커먼 소변을 한 뒷박이나 되는 양을 덩어리로 체험하였던 적이 있다. 지금은 열은 플라 색 소변을 수시로 배출하곤 한다. 힘든 일을 한 때에는 진한 플라 빛 소변을 배출한다. 전도를 하며 오염된 피



이슬성신을 받은 후 소변으로 피를 쏟은 어떤 성도가 소지하고 있던 사진

와 세속인들과 어울려 세상 일을 하며 오염된 피가 진한 플라 색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것이다. <승리제단> 성도들에게는 오염된 피를 배출하는 피같이 생활이 연속되고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 그래서 천지공사 일꾼은 마치 세상의 때를 닦는 걸레와 같다는 표현을 하였다. 세속적인 생활 흐름에 빠져 순응하며 안일한 생활을 하면 썩은 피는 배출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세속적 생활 습관과는 다른 반대생활이 병행되어야 죄의 피가 선혈(하나님의 피)과 분리되어 썩은 피는 배출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반대생활법에 의한 혈독제거와 수명연장에 대하여 방송에 출연

생활 건강 용어로서 '혈독제거'라는 용어가 방송가와 세상에 유행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 디톡스 요법과 해독주스 등이 대중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정법을 말하자면 '제독주스' 또는 '해독주스' 같은 것으로 혈독제거가 되는 게 아니다. 어떤 특별한 약이나 물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다. 세속의 일상인들과 영생의 길을 개척하는 신앙인은 그 생활구조와 정신 자세 패러다임 자체가 다르다. 마음의 자유유법을 생활화함으로써 혈독을 제거하는 것이 유효하며 근원적인 것이다.

필자는 KBS의 지식몬스터 <블로장생의 꿈, 늙지 않는 사회>라는 프로에 참여하여 '마음의 반대생활법과 혈독제거, 그리고 장수 건강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피력한 바 있다. 반대생활법을 습관화하여 잘 실행하지만 한다면 혈독(핏속의 독소)을 제거하여 120~150세 이상 장생은 물론 육신으로 1,000세까지도 살 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프로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그레이 박사와 함께 출연하여 초장수 1,000세 수명과 영생까지 거론하였으니 시청자들 반응이 사뭇 이채로웠다. 이 프로가 시청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재방영도 되었다. 이 프로를 시청한 사람들은 “와, 이제는 150세 장수시대가 되었다”며 환호를 지르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을 필자는 보았다.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에서는 현재 실정로서는 '영생'이라는 것은 환상으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100세 이상 120~130~150세 정도의 장생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대중들에게는 실감 가는 것이다. 1,000세 초장수 이야기나 '영생'이라는 테마는 외국의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 하였을 때 한국인들은 솔깃하게 귀담아들어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한국인이 그런 발언을 방송에서 한다면 사기, 또는 사이버라고 욕질을 하며 방송사를 향하여 함의하거나 사대질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블로장생의 길에 있어 '마음'이 포인 트리는 부분은 그리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음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직도 과학과 생명과학이나 의료기술로 접근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보였다.

일상생활에서 마음의 자유유법을 잘 지키는 것이 수행인의 과제

마음의 죄는 핏속에서 피를 산화시켜 죄독(罪毒, 혈독)으로 축적이 된다. 피가 썩으면 새로운 세포를 조성하지 못한다. 새로운 세포가 조성 안 되면 모든 기관과 조직에 세포가 부족하여 그것이 늙음과 죽음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피가 썩으면 기운(생명력과 면역력)이 쇠약해진다. 그리고 세균이 번성하여 질병을 일으킨다. 선혈에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없다. 썩은 피는 혈독으로서 세포와 혈관을 지배하고 노화의 주범으로 작용하며 육신에 신경통 등으로 전신에 고통을 주는 사망의 신, 마귀의 피이다. 이 혈독제거는 반대생활로써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습관화해야 노화를 방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피가 더 썩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마음의 자유유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일상의 과제이다.

또 이미 늙어진 몸은 반대생활법과 회춘의 비결을 터득 실행하여 3년, 5년, 10년 이렇게 회춘시키는 작업을 결행해야 할 것이다. 불로불사를 이루는 매우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비결이다. 이미 고령으로 노쇠해진 몸은 회춘하려는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50대 정도의 몸으로 돌려놓아 50대 정도로서 항상 청춘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일단 늙음과 노쇠의 고해바다에 이르른 돌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썩은 피를 대소변으로 쏟아내는 이 피갈이를 은혜로써 이루어 한다면 초보시절에 특별한 경우 한두 번은 되겠지만, 안일하게 의존적인 신앙생활만을 해서 한계가 있다. 더욱 더 강한 은혜 당김으로써 상승 발전하는 신앙적 노력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뒤쫓아오는 대 마귀(악령)의 덫, 특히 대장마귀나 음란의 마귀에 걸려 실족을 하게 되고 불로불사와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구세주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스스로의 판단으로 피를 정결케 하는 노력이 구원의 길을 가는 성숙된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말씀,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참고) (다니엘 12장: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여 회개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김광령 승사

84회 성탄절 행사

제2회 주님말씀 요절 송경대회



사회자 김경만 승사



해동산업 남정팀이 대상을 받고 있다



마산제단 안병관 승사가 금상을 받고 있다



무궁화관현악단의 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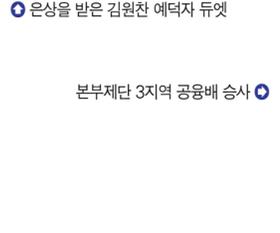
은상을 받은 김원찬 예덕자 듀엣



진해제단팀은 동상을 받았다



무궁화합창단의 합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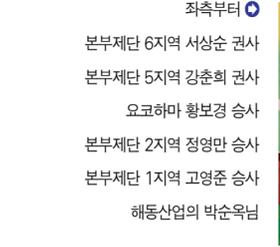
본부제단 3지역 공용배 승사



진척부터



본부제단 6지역 서상순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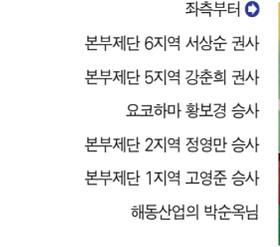
본부제단 5지역 김춘희 권사



요코하마 황보경 승사



본부제단 2지역 정영만 승사



본부제단 1지역 고영준 승사



해동산업의 박순옥님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